

## News

### 文 "뉴딜 성공 뒷받침 해달라"…5대 금융지주 "70조 투자"

연합뉴스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10대 금융그룹 회장을 참석…5대 금융지주가 70조원을 한국판 뉴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대출 등의 방식으로 공급 문재인 대통령, 금융의 역할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줄 것을 요청…이날 20조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신설해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자

### 은성수 "정책형 뉴딜펀드, 사실상 원금 보장 효과"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부 재정이 자(子)펀드에 평균 35%로 후순위로 출자하는데 이는 펀드가 투자해서 손실이 35% 날 때까지는 손실을 다 흡수한다는 얘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정부가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보장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 성격을 가진다"

### 신한금융 1.2조원 유상증자…어피니티·베어링 투자유치

연합인포맥스

신한금융지주, 세계적인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베어링프라이빗에쿼티아시아와 손잡고 1조2천억원 규모의 자본확충…금융당국, 손실흡수 능력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이들은 4%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의 신한금융 지분을 확보…자본확충으로 손실흡수 능력 ↑ …M&A·자회사 지원 가능

### DGB대구은행장 임성훈 사설상 확정

파이낸셜뉴스

DGB금융지주는 3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3명의 은행장 최종후보자군(숏리스트) 중 임 부행장을 제13대 DGB대구은행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  
임 부행장은 2009년 대구은행 삼익뉴타운지점장과 상주지점장 등을 지낸 영업통…이달 말 주주총회를 거쳐 은행장으로 선임될 예정…임기는 2022년 12월31일까지

### '코로나보다 무서운 금소법'…대형 생보사 전속설계사 영입 나서

시사저널

6월 말 기준 24개 생보사의 전속설계사는 9만3,915명으로 전년 말과 비교해 1,988명 증가…빅3 생보사의 전속설계사는 총 5만8,368명으로 전년 말보다 2,206명(3.9%) 증가  
"GA가 판매수수료와 보수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금소법이 상당한 부담…전속설계사 교육 통해 불완전판매 문제 해결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판단

### 10개월만에 '노딜'로 끝나게 된 아시아나항공 매각

연합뉴스

3일 금융권과 재계 등에 따르면 채권단은 전날 현산이 산은 측에 재실사 요구를 고수하는 입장을 내놓자 현산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지가 없다고 최종 판단  
그동안 양측의 공방이 계약금 반환 소송 등에 대비한 명분 쌓기라는 관측…현산이 이미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지급한 계약금 2,500억원 둘러싼 법정 다툼 불가피

### 카카오게임즈 효과 삼성증권 예탁자산 244조 돌파

파이낸셜뉴스

삼성증권, 지난 2일 기준 리테일예탁자산이 244조1,000억원을 기록…지난 6월 업계에서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선 지 두달여만에 40조원이 넘게 증가  
뭉칫돈이 몰린 데는 초저금리로 인한 머니무브 현상과 함께 최근 마감한 카카오게임즈 청약 큰 역할…삼성증권이 공동대표주관사로 참여…최종 종합경쟁률은 1524.85대 1

### 키움증권 HTS 테슬라 주식 자동 매도 사고

한국경제

테슬라 주식이 5대 1로 액면분할한 이후 첫 거래일인 지난달 31일 키움증권 HTS에서 일부 개인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이 액면분할기에 준하는 가격에 자동으로 매도  
키움증권은 "HTS 부가 서비스 기능인 '서버 자동 감시 주문' 기능을 이용하는 고객들 가운데 일부 피해가 발생…고객이 테슬라 주식을 재매수할 수 있도록 관련 피해 보상을 마친 상황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